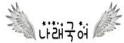


아침특강(6/30)

나래 2014 국외직 해설

	영역	목차
6/30	나래 국외직 8급 해설	
7/9 (수) 다음주	재정국어 Q/A 정리 (이론 심화)	- 음운론의 Q/A - 형태론의 Q/A - 통사론의 Q/A - 의미론의 Q/A



문 1. 다음 <보기> 중 발음이 잘못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1)

웃 입다[온닙따]	폭발[폭팔]
발이랑[바디랑]	피움에[피오베]
설익다[설릭따]	반창고[반창꼬]
인기척[인기척]	밟고[발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문 2. 이 글에 등장하는 예화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

형호(荊浩)의 「화론(畵論)」을 보면, “장수는 목이 없고, 여인은 어깨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세상 천지에 목이 없는 장수가 어디 있는가, 여인은 어깨 어깨가 없을까.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림을 그릴 때, 장수의 기상은 목이 없는 듯 짧게 그리는 데서 드러나고, 미인의 가녀린 모습은 어깨 없이 부드럽게 흘러내린 곡선을 통해 강조된다는 말이다. 또 왕유(王維)가 「원안와설도(袁安臥雪圖)」를 그렸는데, 고사 원안(袁安)이 눈 쌓인 파초 아래 누워 있는 모습이였다. 실제 파초는 남국의 식물이므로 눈 내리는 추위 속에서는 시들고 만다. 그러니까 왕유의 그림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왕유는 사리에 어긋남을 감수하면서 푸른 파초 위에 흰 눈을 그려 넣음으로써 원안의 맑고 시원한 정신의 풍격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당나라의 유명한 화가 고개지(顧愷之)가 은중감(殷仲堪)의 초상화를 그리려 하였는데, 은중감이 평소 눈병이 있었으므로 한사코 거절하였다. 그러자 고개지는 눈동자를 토끼이 그린 다음 그 위에 흰색을 흘날려, 마치 옅은 구름이 달을 가린듯하게 하여 은중감의 눈에 낀 백태를 처리하였다. 이는 사실에 대한 미화하기는 하지만 그의 눈병을 은폐한 것은 아니었다. 또 배해(裴楷)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림을 다 그린 후 뺨 위에 터럭 세 개를 덧그렸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배해는 명철하여 식견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식견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신채(神彩)가 아연 살아났다.
--

- ① 화가가 인물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일부 과장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② 동양화의 전통적 기법에 입각할 경우 사실을 일부 왜곡했다하더라도 진실을 담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 ③ 화가는 대상 인물이 지닌 특성을 함축의 묘미를 통해 표현하면서 자신의 개성과 새로운 화법을 창출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 ④ 화론과 화법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작가의 개성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작품의 질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동양화에 담긴 정신은 화가의 감각과 기법으로부터 비롯되어 특히 초상화에서 그 빛을 발함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3. 다음 중 ㉠~㉣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3)

- (가) 이 작품은 우리 산업사회의 현실이 빚어낸 부정적 측면을 ㉠빛대어 비웃으면서 폭로·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일면을 담고 있다.
- (나) 인습으로 굳어져 내려온 부정적 측면들을 ㉡고치거나 버려 아주 새롭게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발전은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 (다) 처음에 그는 정말 귀공자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 걸음으로는 제법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	㉡	㉢
①	嘲笑	改革	如反掌
②	諷刺	革新	似而非
③	貶下	改革	不相似
④	蔑視	革新	面從腹背
⑤	卑下	改革	表裏不同

문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

음식은 나라마다 특성이 있으며, 식사 예법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요리에 필요한 재료와 조미료가 특히 다르며, 음식에 대한 사고 또한 다르다. 일본인은 시각으로 먹고, 인도인은 촉각으로 먹으며, 프랑스인은 미각으로 먹는다. 조용조용 소리 없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각이 동원되는 예가 흔치 않지만, 우리의 경우는 다르다. 가령, 우리 여름철 음식의 대명사격인 냉면은 스파게티 가락들을 포크에 돌돌 말아 먹듯 젓가락에 말아 먹어서는 재맛이 나지 않는다. 젓가락으로 휘휘 둘러서 적당량을 입끝에 댄 다음 후루룩 입안에 넣어야 제맛이다. 청각이 동원되어야 하는 음식으로는 총각김치와 오이소박이도 빼놓을 수 없다.

- ① 음식의 특성이 바로 식사 예법을 결정한다.
- ② 음식의 재료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달라진다.
- ③ ‘빨리빨리’의 사고 방식을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④ 먹다 보면 소리가 요란할 수밖에 없는 음식들이다.
- ⑤ 조용조용 먹지 않는다고 홍보는 것은 따라서 문제가 있다.

문 5. 다음 글에서 농부가 범하고 있는 오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5)

송나라에 사는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다. 밭 가운데에는 나무를 베어 내고 밭동만 남은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토끼 한 마리가 숲에서 뛰어나와 도망을 가다가 그루터기에 부딪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토끼를 얻은 농부는 다음 날 부터 밭에 나가 밭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토끼 얻기만을 기다렸으나, 토끼는 다시 얻을 수 없었고, 자신은 송나라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 ① 특별한 경우에만 맞는 판단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두루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② 원인을 달리하는 사례를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엉뚱한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특정 대상의 속성을 아전인수격으로 확대하여 허망한 상태에 도달

하고 있다.

- ④ 하나의 생각이나 판단만을 앞세워 전체의 일반적인 원리나 속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 ⑤ 우연한 계기를 근거로 현상의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졌다.

문 6. 다음 중 ㉠~㉤을 바꾸어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6)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는 궁핍할 때 사귄 ㉠벧을 꼽고, 친구의 가장 ㉡깊은 도리로는 가난할 때 의논하는 일을 꼽는다. 높은 뜻과 벼슬을 지닌 선비가 더러 썩이나 가시땀볼로 간신히 지분을 이은 가난한 선비의 집을 찾는 일도 있고, 낯은 ㉢베옷을 걸친 보잘것없는 선비가 더러 소꿉자락을 끌며 권세가 높은 ㉣벼슬아치의 집을 드나드는 일도 있다. 그토록 간절하게 친구를 구해 찾아다니지만, 서로 마음이 ㉤들어맞는 사람을 만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 ① ㉠ : 봉집(朋執) ② ㉡ : 연심(淵深)한
③ ㉢ : 백의(白衣)를 ④ ㉣ : 관원(官員)
⑤ ㉤ : 상치(相值)되는

문 7. 다음 중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쓴 것은?7)

- ① 큰일은 다 치뤘으니 이제 당분간 홀가분하게 쉬십시오.
- ② 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③ 살을 예는 추위에 쏘레기를 주으면서 등산을 했다.
- ④ 창고에 벌여 놓았던 책들을 다시 수레에 실으러 갔다.
- ⑤ 지난주에는 활짝 개인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오늘은 갑자기 우레가 쳤다.

문 8. 다음 <보기>의 글이 글어갈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8)

<보기>

즉, 처음에 생각한 바를 음성 언어로만 표현하다가 차차 그것을 일정한 의미로 어느 정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자 다시 그것을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설명문자의 예로 문자의 발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가) 메소포타미아 유적지를 발굴하던 중에 설명문자가 새겨진 점토판 몇천개가 발견되었다. 그 점토판에 쓰인 설명문자를 해독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맥주 조제법, 곡식을 배달한 뒤 주고받은 영수증, 가족의 종류와 마릿수, 건물 축조를 위한 규정 등이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 밖에도 종교적, 역사적 사실이 적힌 문자판도 발견되었다.

(나) 이러한 일련의 점토판들은 우리에게 성서가 쓰이기 전, 그리고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의 고대 사회의 모습을 전해 주고 있다. 어떤 것들은 그 문자판을 읽는 독자에 대한 정보도 알게 한다. 그는 분명히 사제 계급의 교육 혜택을 누린자였을 것이며 행정과 거래에서도 여러 기능을 담당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 이집트 문자의 발생에서도 역시 그림문자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학자들은 향아리나 다른 생활용품들에 새겨 넣었던 그림 장식에서 이집트 문자가 발전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장식된 그림문자들은 그림을 보는 독자에게 영상적인 의미를 제시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엄격한 의미에서의 문자라고 부르려면 그 사용된 표식이 말소리로도 옮겨질 수 있어야만 한다.

(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에 어느 지역에서 문자가 최초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거론된 세 고문화에서 기원전 약 5,500년 ~ 4,800년 경에 최초로 문자가 만들어졌다. 언어학자들은 처음에는 한정적이던 문자의 체계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완전한 형태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마) 수메르인들의 사원학교에서 발견된 점토판을 연구함으로써 설명문자가 발전된 여러 단계의 과정을 따라가 볼 수 있다. 점토판의 한쪽 면에는 교사의 모범 글씨가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학생들이 그것을 따라 연습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최초의 문자 표본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실제의 물체를 단순화하여 표식으로 만든 것이었다. 예를 들면 소의 표식으로 소의 머리를 그렸고 단순화된 삼각형 모양으로 여성의 성기 모양을 나타내어 '여자'에 해당하는 그림문자를 만들었다. 그것들은 일종의 픽토그램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의 그림 표식마다 그에 해당하는 사물이나 생물을 나타내었다.

- ① (가)의 뒤 ② (나)의 뒤 ③ (다)의 뒤
④ (라)의 뒤 ⑤ (마)의 뒤

문 9. 다음 작품에 투영된 시적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9)

靑山는 옛데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는 옛데하야 晝夜에 굿디 아니노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호리라

- ① 五曲은 어드미오 隱屏이 보기 조희
水邊精舍은 瀟灑호도 ㄱ이 업다
이中에 講學도 흐려니와 咏月吟風호리라
- ② 찬들고 혼자 안자 먼 뵈홀 브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랴
말슴도 우움도 아녀도 문내 도하호노라
- ③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三間 지여 내니
나 혼간 들 혼간에 淸風 혼간 맞쳐 두고
江山은 들을 되 업스니 돌러 두고 보리라
- ④ 고을사 저 쫓치여 半만 여원 저 쫓치여
더도 덜도 말고 每樣그만 하여잇서
春風에 香氣 좇는 나뭇을 웃고 마즈 히노라
- ⑤ 靑山도 절로절로 綠水ㅣ라도 절로절로
山 절로절로 水 절로절로 山水間에 나도 절로절로
그 중에 절로 즈란 몸이 늑기도 절로절로 흐리라

문 10. 다음 ㉠~㉤의 독음이 바른 것은?10)

大雨가 降하라면 雷電이 有하고 大風이 起하라면 陰雨가 下하나니 엇지 人類의게 새 生命을 與할 國際聯盟이 出來할 대에 大風雲이 無하리오. 武裝으로 生産한 財貨와 武裝으로 長成한 人物은 淸淨하게 ㉠掃除하고 愛에서 産出하는 財와 愛에서 動作하는 人을 ㉡敝出하야써 新鮮한 基礎우에 神聖한 新文化를 建設하라고 大戰이 發生한 것이 아인가. 大戰을 經한 후에 交戰各國의 統計를 觀하면 杜甫의 兵車行과 李華의 ㉢圜戰場文을 唱치 아니치 못할지로다 觀할지어다. 華麗하든 市街에 秋草가 生하고 莊嚴하든 堂宇에 ㉣灰燼이 飛하니 子를 失하고 痛하는 者며 父를 亡하고 哭하는 者며 子도 父도 妻도 夫도 無하야 哭할 者도 通할 者도 無한 者가 그 數를 難計이니 ㉤愁愁한 鬼哭聲이 엇지 神을 動지 아니하얏스리오.

- ① ㉠:소지 ② ㉡:주출 ③ ㉢:기전장문 ④ ㉣:회진 ⑤ ㉤:유유

문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11)

신라 때, 부임하는 신임현령마다 부인이 실종되는 문장에 현령으로 부임한 최충은 미리 부인의 손에 명주실을 매어두었다가 부인이 실종되자 찾아 나선다. 실이 뒗산 바위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최충은 부인을 잡고 있던 금돼지를 죽이고 부인을 구하여 온다.

그 후 부인이 아들 최치원을 낳자, 최충이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버렸더니, 신녀가 내려와 보호해 주고 천유(天儒)가 내려와 글을 가르친다. 치원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의 황제에게까지 들리자 황제가 두 학사를 보내 글을 겨루게 하나 치원을 당하지 못하고 두 학사는 중국으로 돌아간다. 황제는 함 속에 물건을 넣어 신라에 보내며 맞지 못하면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치원은 함 속의 물건을 맞히면 벼슬과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임금의 명령과 승상 나염의 딸 운영이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 운영의 종이 된다. 치원은 나염에게 물건을 맞히면 자신을 사위로 삼아달라고 하여 허락을 받고 그것이 계란에서 병아리가 된 것임을 맞힌다. 황제가 물건 맞힌 인재를 중국으로 들여보내라고 하자 치원은 중국으로 간다. 도중에 용자(龍子) 이목(李牧)을 만나고, 늙은 할미를 만난 후 그의 지시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부적새 개를 얻는다. 중국에서 치원은 모든 재주 겨루기에서 부적 등을 이용하여 이기고, 과거에도 급제한다. 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문장으로 항복을 받는다. 그러나 치원을 질투한 대신들의 모함으로 귀양간다. 치원은 그곳에서 선유(仙遊)하다가 황제가 부르자 용으로 다리를 놓아 낙양에 돌아온다. 그 후 치원은 청사자를 타고 고국에 돌아와 백발이 된 아내를 소녀로 만들고 가족과 함께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 ① 작자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이다.
- ② '영웅의 일생' 줄거리를 지니고 있어 영웅소설 유형에 속한다.
- ③ 실존 인물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주로 다루었다.
- ④ 중국의 선비보다 신라의 선비를 우월하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 ⑤ 실제 현실과 반대로 되어 있는 내용에서 현실 극복 심리를 엿볼 수 있다.

문 12. 다음 중 단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12)

- ① 일이 꺼림칙하게 되어 가더니 결국 사달이 났다.
- ② 그는 일 처리가 칠칠하지 못하여 매번 꾸중을 듣는다.
- ③ 아버지의 호통에 안절부절못하는 동생이 몹시 안쓰러웠다.
- ④ 매서운 불길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았다.
- ⑤ 어떤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문 13.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문장성분이 다른 하나는?13)

- ① 나는 외로운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 ② 너는 시키는 일조차 제대로 못 해내는구나.
- ③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음악이라도 듣는 편이 낫다.
- ④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까지 많이 넣어서 가방이 너무 무거웠다.
- 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세 시간을 더 걸어야 한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아지각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면, 지각은 우리 주변의 세상과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이다. 베를슨과 스타이너(Berelson & Steiner)는 지각에 대해 "사람들이 감각적 자극을 선택하고, 조직하고, 해석하여 의미 있고 일관된 세계상으로 바꾸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인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지각은 매우 중요하다. 지각은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이나 정보에 대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세상을 보고자 하는가'라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곧 자아지각이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지각은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일종의 기대(㉠)와 준비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대상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오감을 동원한 감각에 따른 분류 - 물론 이 과정에서 왜곡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 를 하게 된다. 이는 기존에 습득된 무엇인가가 바탕이 되어 일종의 기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만약 이러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일이 펼쳐질 때마다 수없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때 자아지각은 감각에 따른 분류 작업을 돕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자아지각 외에, '상대방을 어떻게 보는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믿는가'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지각이 일어나고, 상대방의 다양한 지각 또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전개 양상을 띤다. 이 가운데 자아지각은 매우 중요해서, 결과적으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인 지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지각은 대체로 세 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정보 수집, 조직화, 그리고 해석 과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마다 이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정보에 노출되었더라도 사람마다 정보를 지각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몇몇 사람만 모여도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각은 수많은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 기초해 먼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쉽다. 주로 무의식 수준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심리는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또 자신의 문화에 익숙한 것을 받아들이려는 심리도 지각에 영향을 준다. 쌍안경을 통해 양쪽 눈에 서로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와 관련된 그림을 지각한다는 연구는 이를 잘 보여준다. 각자가 지닌 동기 또는 욕구, 기분, 태도 등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배가 고플수록 물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음식과 관련된 물체로 판단한다는 연구는 동기와 욕구, 기분(㉣)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 14. 밑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것은?14)

- ① 사람의 심리에 따라 지각도 달라진다.
- ② 상대방에 대한 관점은 지각에 해당한다.
- ③ 사람은 지각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가진다.
- ④ 지각은 어떤 일에 거의 자동적으로 생긴다.
- ⑤ 지각은 모든 사람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문 15. 밑글에서 ㉠~㉣에 들어갈 한자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15)

	㉠	㉡	㉢	㉣
①	期待	混亂	假定	氣奔
②	旗帶	焜爛	假晶	氣奔
③	機臺	混亂	假晶	氣分
④	期待	焜爛	假定	氣分
⑤	期待	混亂	假定	氣分

문 16. 한글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기된 낱말들로 이루어진 것은?¹⁶⁾

- ① 몹시, 색시, 법쩍, 짝두기, 갑자기
- ② 깨끗이, 일일이, 간간히, 툼툼히, 소홀히
- ③ 선짓국, 자릿세, 전셋집, 장맛비, 베풀었
- ④ 오독이, 빠꾸기, 깔꾸기, 홀쭉이, 배불뚝이
- ⑤ 다정타, 어땡든, 익숙치, 섭섭지, 생각건대

문 17.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¹⁷⁾

- ① 그들의 결혼식에 천 여 명의 객객이 몰렸다고 한다.
- ② 우리가 학교를 졸업한 지 십 년만에 만났구나.
- ③ 그는 가난해서 옷은 커녕 끼니도 쟁기기 어려웠다.
- ④ 내일은 제오 회 교내 백일장이 열리는 날이다.
- ⑤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문 18. 다음 작품에 등장하는 ㉠~㉣이 의미하는 바로 옳은 것은?¹⁸⁾

나모도 돌도 ㉠바히 업슨 뒀헤 매게 췌친 가토릭 안과
大川바다 한가운데 一千石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닛도 일코 ㉡농총도 근
코 돛대도 겹고 처도 싸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거 ㉢즈즈진
날에 갈길은 千里萬里 나면되 四面이 거머어득 저못 天地寂莫 ㉣가치
노을 췌느니 水賊 만난 都沙工의 안과,
엇그제 님 여현 내 안하야 엇다가 ㉤그을후리오.

- ① ㉠ : 보이는 것이 ② ㉡ : 닛을 매달아 놓은 줄
- ③ ㉢ : 잔잔해진 ④ ㉣ : 사나운 파도
- ⑤ ㉤ : 원망을 하리오

문 19. 다음 <보기> 중 맞춤법에 맞게 쓰인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¹⁹⁾

<보기>

ㄱ. 새로 이사한 집이 넓직해서 시원해 보인다.
ㄴ. 아이가 어쩌나 속을 썩이던지 도저히 예뻐할 수가 없었다.
ㄷ. 그는 아버지의 말이라면 철썩같이 믿는다.
ㄹ. 웬일인지 오늘은 자꾸 눈물이 난다.
ㅁ. 그녀는 더위에 지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ㄴ, ㄷ, ㅁ

문 20. 다음 중 인용문과 같은 서술시점으로 이루어진 문장은?²⁰⁾

복녀의 송장은 사흘이 지나도록 무덤으로 못 갔다. 왕서방은 몇 번을 복녀의 남편을 찾아갔다. 복녀의 남편도 때때로 왕서방을 찾아갔다. 둘의 사이에는 무슨 교섭하는 일이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밤중에 복녀의 시체는 왕서방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 시체에는 세 사람이 둘러앉았다. 한 사람은 복녀의 남편, 한 사람은 왕서방, 또 한 사람은 어떤 한방 의사. 왕서방은 말없이 돈주머니를 꺼내어, 십 원짜리 지폐 석 장을 복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한방의에 손에도 십 원짜리 두 장이 갔다.
이튿날 복녀는 뇌일혈로 죽었다는 한방의의 진단으로 공동묘지로 가져갔다.

- 김동인, 「감자」

- ① 어머니가 그 꽃을 곧 내버릴 줄로 나는 생각했습니다마는 내버리지 않고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 ②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감꽃뿐.
- ③ 나는 다시 닭은 잡아다 가두고 염려는 스러우나 그렇다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지 않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 ④ 초봉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지금 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는가 해서 궁금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삐그럭 중문 소리에 연달아 뚜벅뚜벅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린다.
- ⑤ 그날 밤에도 몹시 추웠다. 우리는 문을 꼭꼭 닫고 문틈을 행짚으로 막고 이불을 둘씩 덮고 꼭꼭 붙어서 일찍 잤다.

문 21. 다음 <보기> 중 외래어 표기가 올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²¹⁾

<보기>

부르주아, 싱가포르, 아이새도, 컨텐츠,
카라멜, 년센스, 심포지엄, 프리포즈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문 22. 다음 제시문의 밑줄 친 단어 중 한자어와 고유어를 바르게 구분한 것은?²²⁾

바쁜 일상 중에 모처럼 한가한 저녁이다. 오랜만에 한강 ㉠둔치에서 서서 ㉡휘영청 밝은 달을 구경하는 호사를 누리본다. ㉢소담한 자태와 ㉣은근한 광채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유독 달을 좋아했다. 오늘날처럼 외롭고 ㉥적적하기 그지없는 순간에 달은 내게 큰 위로가 된다. 어머니는 ㉦늠름하고 ㉧흰칠한 장부가 어울리지 않게 달을 좋아하느냐며 농을 하신 적이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모르는 것이 있다. 어린 시절, 퇴근이 늦는 어머니를 대신해 내 곁을 지킨 것이 저 달임을 말이다.

- | | 한자어 | 고유어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문 23. 다음 글의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게 사용된 기술 방식은?²³⁾

우리의 자아는 그 과거적 상태에서부터 현재적 상태를 분리하기를 거부한다. 과거와 현재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형성하며, 이 전체 내부에서는 변별이 없는 연속성 속에 상호 침투의 흐름이 지배한다. 왜냐하면 지속 속에서의 과거는, 미래를 먹어 들어가는 (gnawing into the future) 현재의 분할 불가능한 진행과 함께 살아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확화와 공간화에 기초한 객관적 시간의 개념은 인간의 이성 이 발명한 추상일 뿐이다. 이 시간개념은 자연과학적 논의의 층위에서는 대단히 유용할 수 있겠지만 경험의 원천적인 데이터를 실제적, 직접적으로 조화할 수는 없다. 측정이 수확화를 뜻하고 또 수확화가 결국 조깅 수 없는 연속체인 지속의 가속성(可分性)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한 지속은 공간화되거나 수량화될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과학은 종종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론적인 구조물과 형식들이 원천적 경험의 층을 대신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오해하는 몰상식을 범해 왔다.

그러므로 베그로송에 따르면, 참된 직관의 과학(science of intuition)은 언제나 인간 경험의 원천적인 지속에 주목한다.

- ① 대상의 정의(定義)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③ 비교·대조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논의하고 있다.
- ⑤ 비유를 통해 풍부한 해석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 24. 다음 중 밑줄 친 단어가 표준어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24)

- ① 그녀는 항상 옷매무시하는 시간이 길었다.
- ② 행사장 안이 도토피 시장처럼 시끌벅적했다.
- ③ 가난 속에서도 아들바둥 살아가고 있다.
- ④ 그들은 허구한 날 신세 한탄만 한다.
- ⑤ 옷어른을 공경함시다.

문 25. 다음 <보기>에 이어질 (가)~(라)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25)

〈보기〉

철도여행은 인간의 공간감을 뒤흔든다. 인간은 걸으면서 유장하고 느리게 지나가는 주변 공간과 일대일로 맞대면하게 된다. 두 발로 대지에 선 인간은 자연과 일체감을 느낀다. 만유인력의 물리학적 법칙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조건 짓는다. 산과 들, 강과 바다와 같은 주변 경관은 인간의 시선에 기하학적 질서로 파악된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는 인간의 청각에 파동으로 전달되어 흔적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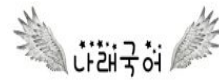
(가) 브르통에게 걷기는 기차와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과 전혀 다른 체험이다. 걷기에서 인간이 능동적 형식의 명상에 빠져든다면, 기차나 자동차는 육체의 수동성과 세계를 멀리하는 길만 가르쳐준다.

(나) 다비드 르 브로통은 「걷기 예찬」에서 걷기의 심오한 철학을 풀어간다. 그에게 걷기는 세계를 느끼는 관능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걷기에서 경험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돌아온다.

(다) 기차여행은 목표지점에 대한 일직선적인 도달만을 욕망할 뿐 그 중간과정은 어쩔 수 없이 견뎌야 하는 잉여의 이동일 뿐이다.

(라) 우리는 정처 없이 걸으면서 지나가는 시간을 음미하고 존재를 애돌아가서 길의 종착점에 더 확실하게 이르기 위해 걷는다. 전에 알지 못했던 장소들과 얼굴들을 발견하고 몸을 통해 무궁무진한 감각과 관능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 걷는다. 걷기는 시간과 공간을 새로운 환위로 바꾸어 놓는 고즈넉한 방법이다.

- ① (나)-(다)-(가)-(라)
- ② (나)-(라)-(가)-(다)
- ③ (나)-(가)-(다)-(라)
- ④ (다)-(나)-(라)-(가)
- ⑤ (다)-(라)-(나)-(가)



7-8월 강좌

강좌명	요일 및 시간	교재	특징
(NEW) 쌤원 이룬 종합반	2개월 수 9:00-13:00 금(격주) 14:00-18:00	재정국어 1-2권	-소수정예 밀착관리반 -종강후 책임지는 교수스터디 -꼼꼼하고 쉬운 수업
(NEW) 나라 이룬 단과 - 문법과 규정	1개월(7월) 수 6:30-10:30	재정국어1권 + 워크북 (주간프린트)	- 마인드 맵을 통한 연상 암기 - 빈칸 유도형 워크북 - 스파르타 과제검사 - 책임지는 교수 스터디
(NEW) 나라 이룬 단과 - 문학과 어/속/성/한	1개월(8월) 수 6:30-10:30	재정국어2권 + 워크북 (주간프린트)	- 스토리텔링으로 고전문학부터 현대문학까지 재미있게 - 퀴즈처럼 퍼즐처럼 저절로 외 워지는 어/속/성/한 - 스파르타 과제검사
(NEW) 나라 이룬 단과 - 독해 알고리즘 (비문학+문학)	2개월 목 6:30-10:30	재정국어2권 + 워크북 (주간프린트)	- 정답만 보아도 해주는 유형별 알고리즘 - 팬터치 모델링 학습용 필름 도 입 - 스파르타 과제검사

1) ④

- 폭발[폭발]: ‘ㄱ’과 같이 음절 말에서 불파된 소리 다음에 된소리와 대립하는 ‘ㄱ, ㄷ, ㅂ, ㅅ, ㅈ’의 소리가 올 때에는 ‘ㄱ, ㄷ, ㅂ, ㅅ, ㅈ’로 소리 나므로, [폭발]로 발음된다.
- 발아랑[반나랑]: 합성이 ‘발아랑’에서 뒤에 오는 단어인 ‘아랑’이 실질 형태소이므로, ‘발’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통해 [발]이 되고 [아랑]과 결합하면서 ‘ㄹ’첨가가 일어난다. 또한 첨가된 ‘ㄹ’으로 인해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반나랑]으로 발음된다.
- 반창고[반창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 인기척[인기척]: 한자 ‘人’에 우리말 ‘기척’이 더해진 말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인기척]으로 발음한다.
- 밭고[밭고]: ‘밭’다는 예외적으로 접받침 ‘ㄱ’이 ‘ㅂ’으로 대표음화되는 단어이다.

[오답풀이]

- 옷 입다[은입매]: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ㄹ’첨가가 일어난다.
- 피우에[피우베]: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글이[디그시], 디글웁[디그썬], 디글에[디그세]
지웃이[지으시], 지웃웁[지으썬], 지웃에[지으세]
차웃이[치으시], 차웃웁[치으썬], 차웃에[치으세]
키웁이[키으기], 키웁웁[키으곤], 키웁에[키으게]
티웁이[티으시], 티웁웁[티으썬], 티웁에[티으세]
피웁이[피으비], 피웁웁[피으븐], 피웁에[피으베]
히웁이[히으시], 히웁웁[히으썬], 히웁에[히으세]

- 설악다[설타마]: 뒤에 오는 단어 ‘악다’가 실질 형태소이므로 ‘ㄹ’첨가가 일어나고 앞에 있는 ‘르’로 인해 유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악다’의 받침 ‘ㄱ’과 뒤에 오는 ‘ㄹ’으로 인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설타마]로 발음한다.

2) ①

첫 번째 문단의 형호의 「하루」에서 장수의 기상을 나타내기 위해 목이 없는 듯 짧게 그리고 미인의 가녀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어깨가 없는 듯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린다고 하였다. 또, 두 번째 문단의 왕유의 「원안와실도」에서도 사리의 어긋남을 감수하면서 원안의 맑고 시원한 정신의 풍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에서도 화가 고개지가 은증간의 초상화를 그릴 때 눈병을 구름이 닦아 가린 듯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모두 화가가 인물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일부 과장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3) ②

- 풍자(諷刺):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풍로하고 공격함.
- 혁신(革新):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 사이비(似而非):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완전히 다름. 또는 그런 것.
- [오답풀이]
- 조소(嘲笑): 비웃음(웃음 보듯이 반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 궤하(賤下): 가치를 꺾어내림.
- 멸시(蔑視):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 비하(卑下):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겨 낮춤.
- 개혁(改革):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
- 여반장(如反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매우 쉽다.
- 불상사(不祥事): 상스럽지 못한 일.
- 면증복매(面從腹背): 겉으로 복종하는 체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배반함.
- 표리부동(表裏不同): 마음이 음침맛아 겉과 속이 다름.

4) ④

서두에 음식에 대한 사고가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였고, 일본인은 시각으로, 인도인은 촉각으로, 프랑스인은 미각으로 먹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와 다르게 청각으로 먹는다는 예시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는 음식을 청각으로 먹는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5) ①

- 우연(원칙 혼동)의 오류
- [오답풀이]
- ② 원인-오랜의 오류 +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③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 ④ 은폐된 전제의 오류
- ⑤ 자기당착의 오류

6) ⑤

- 상치(相値)되는 두 가지 일이 공통묘게 마주치게 되다.
- 상응(相應)하는 :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다, 서로 기맥이 통하다.
- [오답풀이]
- ① 부견(朋儕): [같은 말] 벗(비슷한 또래로서 서로 친하게 사귀는 사람).
- ② 연선(聯綿)한 : [같은 말] 길다(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
- ③ 백의(白衣)를 : 1. 흰옷(물감을 들이지 아니한 흰 빚말의 옷).
2. [같은 말] 배옷(배로 지은 옷).
3. [같은 말] 포의(벼슬이 없는 선비).
- ④ 관원(官員): 벼슬아치(관청에 나가서 나랏일을 맡아보는 사람).

7) ④

- 별이다 : 1.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2. 놀이판이나 노름판 따위를 차려 놓다.
3.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
- 별리다 : 1.들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2. 껍질 따위를 열어 쪼개서 속의 것을 드러내다.
3. 우뚝해진 것을 펴지거나 열리게 하다.
- [오답풀이]
- ① ‘치르다’를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를 붙여 사용할 때, 흔히 ‘치무었다나’ ‘치뤘다’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이 말은 ‘치르다’가 기본형이다. 따라서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가 붙는 경우, ‘치뤘으나’가 올바른 표현이다.
- ② ‘별리다’의 의미로 ‘별다’를 쓰는 경우가 있으나 ‘별리다’만 표준어로 삼고, ‘별다’는 버린다. 다만 (용서)를 ‘별다’는 표준어이다.

- ③ ‘줍다’는 ‘줍고, 주우니, 주워서, 줌’ 등과 같이 활용한다. 이는 ㅂ 불규칙 활용 용언으로서 ‘줍다, 줍다’ 등도 동일한 양상으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
- ⑤ ‘흐리거나’ ‘맑은 날씨가 맑아지다’의 뜻으로 사용할 경우는 ‘개다’가 옳다. 그러나 흔히 언중들이 ‘날씨가 개이다’, ‘개인 하늘을 보만’ 등을 사용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8) ④

- <해설 수업 참고>
- 9) ④
<보기>의 시조는 이항의 ‘도산십이곡’ 중에서 학문에 대한 자세를 다룬 ‘언학’이다.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본받아 항상 꾸준히 학문을 탐구하자는 교훈이 주제이다.
- ④ 안민영의 시조로 ‘꽃’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오답풀이]
- ① 이이의 ‘고산구곡’가 중 5곡으로 자연 속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즐거움이 주제이다.
- ② 윤선도의 시조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이 주제이다.
- ③ 송순의 시조로 자연과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이루고 사는 삶이 주제이다.
- ⑤ 송시열의 시조로 인위(人爲)를 멀리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사는 삶이 주제이다.

10) ②

- ② 做出(주출):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들)
- [오답풀이]
- ① 掃除(소제): 청소
- ③ 조전장문
- ④ 灰塵(회진): 흔적 없이 타 없어짐.
- ⑤ 整潔(수정): 시름(수) + 시름(정) = 시름 깊은 정도로 해석
- 전문 풀이 (원전: 김명식, 大勢와 政論, 동아일보 1920. 4. 2)

대우가 강하라면 뇌전이 유하고 대풍이 기하라면 음우가 하하나 잊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여할 국제연맹이 출래할 대에 대풍운이 무하리요 무장으로 생산한 제화와 무장으로 장성한 인물은 청정하게 ㉠소제하고 애에서 산출하는 제와 애에서 동작하는 人을 ㉡주출하여써 신선한 기조우에 신성한 신문화를 건설하라고 대전이 발생한 것이 아인가. 대전을 경한 후에 교관각국의 통계를 관하면 두보의 병차행과 이화의 ㉢조전장문을 창치 아니지 못할지르다 관할지이다. 화여하던 시기에 추소가 생하고 장엄하던 筆字에 ㉣회신이 비하니 자를 싣하고 통하는 자며 부를 망하고 곡하는 자며 子도 父도 妻도 夫도 무하야 곡할 자도 통할 자도 무한 자가 그 수를 난게이니 ㉤수수한 귀곡성이 잊지 신을 통치 아니하였스리오.

11) ③

문체에 제시된 지문은 「최고운전」이다. 「최고운전」은 작가 미상의 고전소설로, 최치원을 모델로 하고 있지만, 허구적 구성으로 형상화한 글이다. 따라서, ③번에서 실존 인물 최치원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역사적 사실을 주로 다루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2) ④

- ‘사그러들다’가 아니라 ‘수그러들다’가 옳은 표현이다.
- 수그러들다
- 1. 안으로 굽어 들어가 기울어져 들어간다.나팔꽃은 밤이 되면 꽃이 수그러든다.
- 2. 형세나 기세가 점점 줄어들다.
- [오답풀이]
- ① 꺾임칙하게 : ‘한 일이 뉘우쳐져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거나 피하고 싶고 싫은 느낌이 있다’의 뜻인 ‘꺾임하다’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 ‘꺾임칙하다’, ‘꺾름칙하다’이다. 이를 ‘꺾림칙하다’나 ‘꺾름칙하다’로 쓰는 것은 잘못이다.
- 사달 : 사고나 탈
- 사단 : 1.사건의 단서, 또는 일의 실마리.
2.‘사달’(사고나 탈)의 잘못.

- ② 칠칠하지 못하여 : ‘주검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또는 ‘성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아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칠칠하다’를 쓰고, 이를 부정할 때에는 ‘못하다’, ‘않다’를 써서 ‘칠칠하지 못하다(준말. 칠칠지 못하다), 칠칠하지 않다(준말. 칠칠지 않다)’와 같이 쓴다.
- ③ 안절부절못하다 : 표준어 규정 제25항에 보면,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고 ‘안절부절못하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 ⑤ 예면 : ‘예면’의 의미로 ‘예문’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예면’만 표준어로 삼는다. (표준어 규정 2장 4절 17항)

13) ⑤

- ‘걸다’라는 서술어가 목적어로 시간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세 시간’은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이다.
- [오답풀이]
- 나머지 선지의 밑줄 친 단어는 모두 서술어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다.
- ① ~을(은) 참다.
- ② ~을(조차) (못) 해내다.
- ③ ~을(이라도) 듣다.
- ④ ~를(까지) 놓다.

14) ③

세 번째 문단에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마다 이 과정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은 지각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가진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5) ⑤

- ① 기대(期待):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림.
- ② 혼란(混亂):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 ③ 가정(假定): 임시로 정함
- ④ 기분(氣分): 마음에 저절로 느껴지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따위의 감정.
- [오답풀이]
- 旗幟: [같은 말] 기드림(중요한 기(旗)의 위에 달린 좁고 긴 띠).
- 機臺: 기계를 올려놓는 받침.
- 燈檠: ‘혼란하다’(어려운)라는 빛이 눈부시게 아름답다’의 어근.
- 假晶: <광업> 광물이 결정의 외형은 유지한 채 내부는 다른 결정형을 나타내는 것

氣奔 : <한의학> 온몸의 살갗이 몹시 가렵고 끊임 없이 피가 나는 피부병.

16) ③

사이시옷의 원칙에 따라 ‘선지국, 자릿새, 진젓비, 장맛비, 배갯웃’ 모두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법석, 작두기 : 한 단어 안에서 ‘ㄱ, ㄴ’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② 간간이, 툭툭이 :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아’로만 나는 것은 ‘-아’로 적고, ‘하’로만 나가나 ‘아나’하로 나는 것은 ‘-하’로 적는다. ‘-하다가 붙는 경우 주로 ‘-하’가 온다.

* ‘-하다가 붙어도 ‘-아’를 적는 경우
(참여 또는 준참여인) 명사 뒤, ‘ㅅ’ 받침 뒤, ‘ㄴ’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부사 뒤

④ 갈쭉이 : 용언의 어간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들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혀 적는다(‘-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아’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⑤ 익숙지, 심심지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17) ④

‘재(策)’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의 뜻을 더한다. 접두사로 쓰여 뒤에 오는 숫자는 항상 붙여 적는다. ‘제일, 제이, 제삼’ 뒤에 아라비아 숫자가 올 때도 마찬가지다.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서는 ‘제5화’라고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5회’처럼 아라비아 숫자 ‘5’과 ‘회’를 붙여 적는 것도 허용된다.

[오답풀이]

① 천여 명 : ‘그 수를 넘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여’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는 붙여 쓰이되, 주로 ‘십여 개, 이십여 년, 40여 개국, 백여 개, 천여 명’과 같이 ‘십’, ‘백’, ‘천’ 단위의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 붙여 쓰인다.

② 십 년 만에 : 의존명사 ‘만’은 흔히 ‘만에’, ‘만이다’ 꼴로 쓰이며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③ 웃은커녕 : 제언 뒤에 붙는 보조사로,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거나 ‘말할 것도 없거나’와 도리아의 의미를 가진다.

⑤ 해결하는 데 : 의존명사 ‘데’는 ‘곳’이나 ‘장소’, ‘알’이나 ‘것’,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18) ④

가치노을 : 폭풍우가 오기 전 저녁 무렵 서쪽에 뜨는 놀 또는 사나운 파도.

[오답풀이]

① 바히 : ‘바이(아주 전하)’의 옛말 혹은 바윗돌

② 농총 : 용총줄(돛대에 매어 놓은 줄).

③ ㅈ·ㅅ·진 : 자육한

⑤ 구을항리요 : 비교하리요

현대어 풀이

나무도 돌도 ㉠아주 전혀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출 석이나 되는 짐을 실은 배가 노도 있고, 닛도 있고, ㉡돛줄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까지 빠지고 바람이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갯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은 겁이 아득하게 저물어 천지는 적막 ㉣사나운 파도 치는데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엇그제 입을 이별한 나의 마음이야 어디에다 ㉤비교할 수 있으랴.

19) ④

ㄴ, ‘씩’이라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씩히다’는 ‘물질을 썩게 하다’ ‘재능 등을 내버려진 상태에 있게 하다는 의미를 지녔다. 모두 ‘씩’의 사동형이다.

ㄹ, ‘닐부리지다’와 ‘닐브리지다’ 중에서 ‘닐브리지다’가 널리 쓰이므로 ‘닐브리지다’를 표준어로 삼는다.

[오답풀이]

ㄱ, ‘닐썩히다’는 ‘닐다’와 관련이 있지만, 소리가 [닐썩카다]로 굳어졌으므로 소리대로 ‘닐썩히다’로 적는다.

ㄷ, ‘마음이나 의지, 약속 따위가 매우 굳고 단단하게라는 의미의 부사는 ‘철석(鐵石)’같아’이다.

ㄷ, ‘헨알’의 의미로 ‘헨알’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헨알’만 표준어로 삼는다.

20) ②

지문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의 서술이다. 3인칭 작가 관찰자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여 전달하지 않고 장면을 묘사하고 대사를 전달한다.

[오답풀이]

① 1인칭 관찰자 시점

③ 1인칭 주인공 시점

④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중 특정 인물 시점 = 제한적 시점

⑤ 1인칭 주인공 시점

21) ②

부르주아, 아이새드, 심포지엄, 프리포즈

[오답풀이]

싱가포르, 콘텐츠, 캐러멜, 난센스

22) ⑤

-고유어

㉠ 문자: 물가의 언덕이나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 휘청청: 달빛 따위가 몹시 밝은 모양, 시원스럽게 솟아 있는 모양

㉢ 소단한: 생김새가 탐스러운, 음식이 풍족하여 먹음직한

㉣ 흰칠한: 길고 미끈한, 막힘없이 깨끗하고 시원스러운.

-한자어

㉤ 은근(隱隱)한: 아단스럽지 아니하고 꾸준한, 정취가 깊고 그윽한, 행동 따위가 함부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은밀한

㉥ 유득(優得): 많은 것 가운데 홀로 두드러지게

㉦ 적적(寂寂)-하기: 조용하고 쓸쓸하기, 하는 일 없이 심심하기

㉧ 늠름(凜凜)-하고 : 생김새나 태도가 의젓하고 당당하고

23) ③

이 글은 ‘참된 직관의 과학’을 수학과 공간화에 기초한 객관적 시간의 개념과 비교 대조하면서 글의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형성하며 지속된다고 말하면서,

경험을 수량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24) ③

‘아등바등’의 의미로 ‘아등바등’을 쓰는 경우가 있으나 ‘아등바등’만 표준어로 삼는다.

[오답풀이]

① ‘매무새’는 ‘옷, 머리 따위를 수습하여 입거나 손질한 모양새’를 뜻하는 말이고, ‘매무사’는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는 따위의 뒷단속’을 뜻하는 말이다.

② 상풍, 종고풍, 고물 따위 여러 종류의 물건을 도산매·방매·비밀 거래하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비정상적 시장을 일컬어 ‘도매기시장’이라 한다. 이를 ‘돛테기시장’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④ ‘허구한’ 꼴로 쓰여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⑤ 위아래의 대립이 없을 때는 ‘웃-’을 쓴다. 따라서 ‘웃어른’을 표준어로 삼는다.

25) ②

<해설 수업 참고>